꿈을키우는대학교
대표 (043)645-1125~9
세명대학교

安東權氏宗報

愛國志士 竹稚 權愛羅女史

애국거사 죽치 권애라여사

권애라 여사

지난 6월 23일 오전 11시30분에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 난정초등학교 강당에서 서울과 김포에서 전세버스 각 1대씩과 친'인척', 지역유지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애라 기념사업 창립 발기인회가 주최한 죽치 권애라 전기출판 기념회와 죽치 권애라 기념사업회 발기인 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권오윤 김포종친회 총무의 사회로 개최의례에 이어서 유천호 강화군수, 신순범 前 국회의원, 권중동 前 노동부장관, 권익현 前 민정당 대표, 권혁우 죽치 권애라 기념사업회 창립발기인회 대표와 여러 지역단체장들이 소개되었다.

다음 신순범 前 의원의 내빈축사와 권중동 前 장관의 축하 인사말이 있었으며 유족대표로서 권애라 김시현 내외의 친 손녀인 김영방씨가 답사로 감사인사를 표했다.

한편 죽치 권애라여사(1892. 2. 2~1973. 9. 26)는 경기도 강화에서 태어나 1919년 3월1일 충교(忠橋) 예배당 내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어윤희(漁允熙)와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이날의 독립만세운동은 그의 손에 독립선언문이 전해지면서 추진되었다. 권여사는 이 선언서 80여 매를 호수돈여자보통학교에서 어윤희에게 넘겨주어 주요 인사들에게 배부하였고,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독립운동가와 찬송가를 부르며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이 만세시위행렬에 억눌렸던 일반민중도 호응하게 되자 일경이 동원되어 그를 비롯한 많은 주도인사들이 피체되었다. 5월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았고 7월4일 경성복심성복법원에서 징역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 후에도 독립운동에 관련된 일에 힘써왔는데 1920년 4월25일~5월27일 6회에 걸쳐 수표교예배당을 비롯하여 정동예배당에서 '반도의 희망' '잘 살읍시다' 등의 제목으로 한국 여성의 애국사상 고취를 위한 강연을 몇 차례에 걸쳐 시도하다가 그해 7월9일 종로경찰서에 구금되었고 1922년 1월에는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인민대표회의 한민족 여성대표로 참가하여 당시 민족대표 여운형(呂運亨) 나용균(羅容均) 등과 함께 활동하는 등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1929년 중국 소주(蘇州) 경해여숙대학에서 수학하면서 상해(上海)를 중심으로 여성지위 향상과 조국광복운동에 활약하였고 이후 동삼성(東三省)에서 지하 항일운동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1942년 길림성 시가둔 영신농장에서 아들 김봉년(金峰年)과 함께 일제 관동군 특무대에 피체되어 1년 이상 비밀감옥에서 고문, 취조를 받은 다음 장춘고등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2년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8월15일 광복으로 장춘형무소에서 석방되었다.

이에 정부에서 여사의 공훈을 기리며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으며 또한 1995년 10월21일 대전국립묘지에서 애국지사 권애라여사 안장식을 거행하였다.

〈편〉

지난 6월 독립운동가 권애라 전기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는 모습

始祖墓所 陵洞齋舍 補修工事 完工

시조묘소 능동재사 보수공사 완공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에 있는 능동재사(陵洞齋舍-1984년 1월 10일 중요민속자료 제183호로 지정)는 마당과 계단에 하자가 있어 춘추향사에 문제가 발생하고 문화재로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었다.

즉 큰 채(齋舍) 앞마당의 토질이 좋지 않아 배수가 안 되고 있으며, 동재(東齋)의 뒷마당이 시멘트로 변형되어 있었고, 재사(齋舍) 전면에 화강석으로 계단과 디딤돌이 설치되어있어 자연석기단과 이질감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건물 기단의 대부분에 유색 시멘트를 바르고 서재의 고막이가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하자를 3,000만원(국비 2,100만원 도비 270만원 시비 630만원)의 예산으로 안동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고 창성건설(주)가 착공하여 5월 16일부터 6월 22까지 변형된 계단, 마당 및 균열이 진행 중인 벽체와 기단 등을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1. 기단공사

① 큰 채 전면의 화강석계단을 철거 후 기단과 일체화가 되도록 계단 양측의 1m까지 기단을 해체하고 자연석계단 설치

② 계단의 돌은 서로 맞물리게 쌓아 변형이 없도록 하고 계단과 기단의 기초는 생석회잡석으로 마감

③ 기단 상면의 계단(화강석디딤돌)을 자연석으로 설치

④ 큰 채, 추원루(追遠樓) 및 서재 양면 기단은 10cm 생석회로 다짐

⑤ 서재의 고막이 미장

2. 마당정비공사

① 큰 채 앞마당의 토사를 걷어낸 후 마사토를 15cm 두께로 깔고 배수로 쪽으로 배수 구배를 둠

② 동재(東齋) 뒷마당의 시멘트 포장을 걷어낸 후 마사토를 15cm 두께로 깔고 배수 구배를 둠

3. 기타공사

① 주차장에서 추원루(追遠樓)로 오르는 계단을 화강석으로 설치

② 공사 중에 발생한 폐 토사와 폐 콘크리트의 폐기물은 지정업체에서 반출

예정사항(豫定事項)은 현재 추원루(追遠樓)가 기울고 있어 대종원은 안동시에 보수공사를 신청하였고 안동시는 정밀 진단 계획에 있다. 종원은 추원루(追遠樓) 이용시 많은 인원이 오르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권계동 상임부총재〉

능동재사 보수현황(좌상:재사 계단, 우상:추원루계단, 좌하:마사토를 깔은 마당, 우하:추원루 계단정비

權五鉉 삼성전자부회장

제26회 인촌상(산업기술부문) 수상

권오현 부회장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는 지난 8월 30일 인촌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제26회째를 맞은 올해 인촌상에 삼성전자 부회장 권오현(60. 서울. 權五鉉)씨가 산업기술부문으로 수상하게 되었으며 시상식은 10월8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털볼룸에서 열리며 상금 1억원과 메달을 받게 된다.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는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에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경성방직과 고려대학교를 설립한 민족의 지도자 인촌 김성수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1987년부터 인촌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권오현 부회장은 수상소감으로 "뜻 깊은 상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도체산업이 국가 기반산업으로 성장해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상의 기쁨을 반도체업계 전체와 나누고 싶다고 말했으며 씨는 정책을 통해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준 정부와 각 기관에도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권 부회장은 1977년 이래 줄곧 반도체산업에 몸담았고 한국은 그동안 전자산업과 정보기술(IT) 분야의 세계 최대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의 발전이 한국 전자산업을 성장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며 경쟁력 있는 반도체 기술 확보가 가전제품, 휴대전화 완제품 부문의 성과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씨는 1977년 전자기술연구소(현 전자통신연구원) 반도체 설계실 연구원을 시작으로 35년 동안 한국 반도체산업을 이끌어 왔다. 1985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후 64메가 D램(1992년), 256메가 D램(1994년), 1기가 D램(1996년)의 세계 최초 개발을 주도했다. 1997년 시스템 ISI 제품 기술실장을 맡아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고부가가치 비메모리 반도체분야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 또 2008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을 맡아 반도체산업이 2010년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수출 500억 달러를 돌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권 부회장은 "앞으로도 세계 최고 자리를 유지하려면 창의성을 키워야 합니다. 선두를 추격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업계의 리더로서 창의적인 혁신으로 시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워크스마트(work smart) 업무환경을 만들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 했다.

권 부회장은 경영방침을 묻자 "어려울수록 미래를 준비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경영에 도움이 됩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경쟁회사들의 극심한 견제 속에서도 선두자리를 더욱 굳건히 하겠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이 계속될 것입니다. 진정한 글로벌 톱 기업이 되려면 쉼 없는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변화를 파악하는 마켓 센싱(market sensing) 역량을 높여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인용〉

靖簡公이 編纂한 '薰陶坊鑄字洞志'

정간공 편찬 훈도방주자동지

▶ 지난호에 이어서

주자소는 소위 왕립 활판 인쇄소이며 활자의 제조 및 보관, 인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주자의 보관과 인쇄이며 주조를 위해서는 주자도감과 같은 임시직이 설치되어 있었다.

태종3년부터 임진란까지 정부에서 주조한 활자는 계미자, 경자자, 갑인자, 병진자, 경오자, 을해자, 을유자, 갑진자, 계축자, 병자자, 경진자(재주 갑인자)의 11종이었다. 이러한 활자의 신주 동기는 경자자의 예와 같이 인쇄기술상의 편의를 도모한 것도 있으며, 활자가 부족하여 부득불 신주한 경진자 같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활자는 각 왕의 취미에 따라 또는 어떤 특정한 서적을 인쇄하기 위해 개주한 것이다. 그리고 갑진자 또는 병자자와 같이 신주 동기가 신착한 중국서적(목판본)의 자체를 사양하고 기왕이면 같은 자체로 그 서적을 인쇄해 보겠다는데 있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태종, 세종 또는 성종 등은 중국 판본을 자본(字本)으로 택하고 있는데 세조만은 을해자, 기유자 모두 한국인의 필적을 자본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취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한편 인쇄기술 자체는 태종조의 계미자 당시에는 하루에 단지 몇 장을 인출할 정도의 유치한 것이었으나 중종조의 병자자에 이르러서는 문원영화(文苑英華) 1천권을 인쇄해 낼 정도로 장족의 발전을 하기도 했다.

천문·인쇄 등의 분야에서 활약한 '이천'

이천은 안동 예안(禮安) 사람으로 무과(武科)·무과중시(武科重試) 등에 급제하였으며, 충청도 병마도절제사(忠淸道兵馬都節制使), 공조참판(工曹參判), 병조참판(兵曹參判), 평안도 병마도절제사(平安道兵馬都節制使), 호조판서(戶曹判書) 등의 자리에 올랐다.

천성이 정교(精巧)하여 화포(火砲) 종경(鍾磬) 규표(圭表) 간의(簡儀) 혼의(渾儀) 주자(鑄字) 등을 감독하고 관장했다.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은 지중추원사 이천을 불러 의논하기를 "태종께서 처음으로 주자소를 설치하시고 큰 글자를 주조할 때에 조정 신하들이 모두 이룩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태종께서는 억지로 우겨서 만들게 하여, 모든 책을 인쇄하여 중외에 널리 폈으니 또한 거룩하지 아니하냐. 다만 초창기이므로 제조가 정밀하지 못하여 매양 인쇄할 때를 당하면 반드시 먼저 밀(蠟)을 판 밑에 펴고 그 위에 글자를 차례로 맞추어 꽂는다.

그러나 밀의 성질이 본디 유(柔)하므로 식자(植字)한 것이 굳지 못하여 겨우 두어 장만 박으면 글자가 옮겨 쏠리고 많이 비뚤어져서 고르게 바로잡아야 하므로 인쇄하는 자가 괴롭게 여겼다.

내가 이 폐단을 생각하여 일찍이 경에게 고쳐 만들기를 명하였더니 경도 어렵게 여겼으나 내가 강요하자 경이 지혜를 써서 판을 만들고 주자를 부어 만들어서 모두 바르고 고르며 견고하여 비록 밀을 쓰지 아니하고 많이 박아 내어도 글자가 비뚤어지지 아니하니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긴다.

이제 대군들이 큰 글자로 고쳐 만들어서 책을 박아 보자고 청하나 내가 생각하건대 근래 북정(北征)으로 인하여 병기(兵器)를 많이 잃어서 동철(銅鐵)의 소용도 많으며, 더구나 이제 공장들이 각처에 나뉘어 있어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심히 번거롭고 많지마는 이 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해지고 있다.

세종은 이천에게 명하여 그 일을 감독하게 하고, 집현전 직제학 김 돈 직전 김빈 호군 장영실 첨지사 역원사 이세형 사인 정척 주부 이순지 등에게 일을 주장하게 맡겼다. 경연에 간직한 효순 사실 위선음즐 논어 등 책의 자형을 자본으로 삼아 주자 20여만 자를 만들었는데 자체가 깨끗하고 바르며, 일하기의 쉬움이 예전에 비하여 갑절이나 되었다고 한다.(끝)

安東權氏宗報 | 宗是: 崇祖理念確立·愛族思想鼓吹 後學啓導寄與·社會倫理培養

발행인 權正達 편집인 權景晳 인쇄인 權寧雄

발행장소 : 安東權氏大宗院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5-3(2층)
우: 130-820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安東事務所 :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418-1(3층)
우: 760-905 전화 (054) 854-2256 FAX(054)854-2257
태사묘 연락소 : (054)859-2346 안동시 북문동 24-1(서재)

E-mail : ankwonjung@yahoo.co.kr / ankwon2695@naver.com

編輯委員	권계동, 권오복, 권혁채
記 者	권범준, 권혁세, 권경일, 권오인
자문위원 : 권중달 권영한 권태하 권영섭 권오창	

예금주 및 계좌번호(안동권씨 대종원)
권 경 석 국민은행 448601-01-378019
(중앙종친회) 농 협 076-02-247343

종보사(개인독자)
우체국 : 종보사
010108-01-000369

樞密公·忠憲公·秋享祭 案內

京畿道 坡州市 津東面 下浦里山 177 壇所에서 2012年度 秋享祭를 奉行 하오니 많은 派親들의 參祭를 바랍니다.

▲日 時 : 2012年 10月 21日(셋째週 日曜日)10시 30분

▲交 通 便 : 서울 光化門 世宗文化 會館옆에 待期中인 산내들 觀光버스 2대에 搭乘(08시 15분 正刻 出發)

▲個人參祭 : 個人參祭 派親은 當日 09:30分 까지 前進橋 軍 檢問所에 倒着 出入 節次를 畢한 後 出入(住民登錄證 惑은 運轉免許證 持參 要望)

連 絡 處 : 樞密公派 大宗會 (02)737-6423 / 大宗會長 010-8941-6786 / 事務局長 011-9867-3177

2012년 10월 1일

安東權氏樞密公派大宗會 會長 權 赫 昇

檢校派祖 秋享祭 案內

근계
중추 지제에 파친 평안하심을 仰祝 하옵니다. 就而 아뢰올 말씀은 우리 宗會의 年中最大 行事인 尚州恭儉 派祖 秋享祭를 아래와 같이 봉행코자 하오니 公私多忙 하시더라도 많은 참제를 희망하옵니다. 各 가정 언제나 건강들 하옵시고 만복이 充滿하시옵길 祝願하옵니다.

◇ 아 래 ◇

추 향 제 : 2012年 11月 2日(金) 오전 10시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서울출발 : 2012年 11月 1日(木) 오후 2시
출발장소 : 지하철 7호선 먹골역 ①번 출구 앞
※ 추향제에 참석하실 분은 승용차 준비관계로 2012년 10월 29일(월)까지 오운, 용모 총무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총무 권오운 010-3170-0962 총무 권용모(011-396-0903)

2012년 10월 1일

安東權氏檢校公派서울宗會 會長 權 泰 春